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담당자 : 변경록 주무관

연락처 : 055-211-2313

경남도, 국민의힘 경남 국회의원 당선인 정책간담회 개최

- 9일 여의도에서 박완수 도지사, 국민의힘 경남 당선의원 등 30여 명 참석
- 당선 축하 및 도정 주요 정책현안·국비사업 등 51건 논의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최형두 국민의힘 경남도당 위원장을 비롯한 경남 국회의원 당선인과 박완수 도지사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힘 경남 국회의원 당선인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이달 말 제22대 국회 개원에 앞서, 도와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 간에 도정 주요 정책현안과 국비사업 등을 공유하고 상호 발전적 협력관계를 모색하고자 국민의힘 경남도당의 요청으로 마련되었다.

박완수 도지사는 인사말에서 “도민과 경남도를 위해 지역현안 논의 및 법 제정 등 다양한 방면에서 함께 발맞춰 갈 수 있길 바라며,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우리 도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완수 도지사는 21대 국회 폐회와 함께 자동 폐기가 예정된 경남 관련 법안이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가칭)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을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건의하였으며, 섬 개발 인허가 의제화 등이 포함된 「섬 발전 촉진법」 개정도 논의되었다.

이와 함께 5월 27일 사천에 우주항공청 개청이 예정된 가운데,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범정부 추진 전담 기구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또한 방산부품연구원의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방위산업발전법」 개정과 국가
녹조 전담 기관의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개정도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주요 정부 공모사업에 경남도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
도 당부했다.

지난달 도내 4개 모델 7개 대학이 예비 지정된 2024년 글로벌 대학 선정 공모
에 2개 대학 이상이 최종 지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며, 전국 2위의 수소기업
집적지인 경남에 수소특화단지가 지정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주요 현안사업>

▲ (가칭) 남해안권 (관광특화)발전 특별법 제정 ▲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 남해안 및 섬 특화 발전을 위한 「섬 발전 촉진법」 개정 ▲ 국가차원 녹조대응 전담
기관 설립 ▲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제도개선 ▲ 경제자유구역 확대 ▲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
웨이 구축 ▲ 가야역사문화권 관광벨트 구축 ▲ 거제지역 지방관리무역항 국가전환 ▲ 사천
우주항공선(철도) 건설 ▲ SMR제조공정 기술개발 사업 예타 추진 ▲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
성사업 예타추진 ▲ 경남형 수소특화단지 지정 ▲ 경남 도내 대학 글로벌대학 선정 등

이어 2025년도 중점 추진이 필요한 국비사업 20건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도가 건의한 주요사업으로는 ▲글로벌 첨단항공 모빌리티 선도기술 개발 ▲우
주항공부품기술원 설립·운영 ▲글로벌 융복합 콘텐츠산업타운 조성 등 신성장
동력산업, ▲양산 도시철도 건설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건설 등 SOC사업,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경상남도의료원 진주병원 설립 등 의료기
반 확충 사업,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등 관광산업이 포함됐다.

경남도는 올해 역대 최대인 9조 4,079억 원의 국비를 확보한 데 이어 내년에는
사상 최초 국비 10조 원 확보를 목표하고 있다. 이날 건의한 사업을 비롯해 도
정 핵심 사업의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국회에 대한 단계별·전략적 대응과
함께, 지역 국회의원 및 시·군과의 협조체계 구축 등 전방위적으로 행정력을 집
중해 나갈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정책기획관 변경록 주무관(055-211-231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